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간접 금지 표현 연구*

이 은 희

Abstract

Lee, Eun Hee. 2014. 6. 30. **A Study on Korean Indirect Prohibitive Express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55, 285-314. Indirect Prohibitive Expressions are very important for a harmonious conversation. But due to the difficulties in confirming the forms of those expressions, we have scarcely studied and taught them in Korean language classes.

In order to propose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paper will deal with pragmatical situations in which the learners would frequently face. I searched and analysed commonly used strategies and forms in those situations by using DCT. Through this process, I was also able to present multi-functional strategies and forms.

Finally, I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for desirable teaching-learning methods of Korean Indirect prohibitive expression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 words】 간접 지시 표현(Indirect prohibitive expressions), 담화완성형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표현의 기능(Functions of expressions), 전략(strategy), 화행 (speech act)

1. 머리말

‘금지’와 같이 청자의 체면 손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언어 행위의 경우,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 S1A5B5A 07047983)

한국어 화자들은 금지를 직접 지시하기보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 직관이 없는 학습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금지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¹⁾.

간접 표현의 경우, 상황과 개별 화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표현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를 스스로 익혀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실현되는 간접 금지 표현에 대해 사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지 표현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김영란(1999), 이은희(2012) 정도를 찾을 수 있고, 전통적으로 금지는 부정 범주의 일부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금지 표현 자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소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간접 표현은 다루고 있지 않다. 간접 표현이라는 것은 화자 개인의 개성, 언어 습관 등이 반영되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연구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접 표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 연구 성과가 절실하다. 우선 한국어 화자들이 간접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간접 표현 형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학습자가 접할 만한 상황에서 다수의 한국어 화자가 사용하는 간접 표현을 수집하여 이를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먼저 간접 표현의 범위를 설정한 후 간접 금지 표현이 수행하는 세부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간접 표현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CCSARP(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1) 이와 관련해 이은희(2012)에서는 학습자의 이러한 어려움이 회피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학습자의 금지 표현 사용 오류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Project)에서 사용한 지시 화행 전략의 틀을 적용할 것이며, 세부 기능의 분석에서는 柏崎雅世(1993:32~37)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 세부 기능별로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간접 금지 표현들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간접 금지 표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어 간접 금지 표현이 교재에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한국어 간접 금지 표현의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

2. 간접 금지 표현의 범위 및 금지 표현의 기능

2.1. 간접 금지 표현의 개념

금지행위는 행위 지시의 일종이므로 여기서는 CCSARP(Cross- 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에서 사용한 지시 화행 전략의 틀을 적용한다. CCSARP에서는 화행의 간접성을 보여주는 각 단계와 9가지 하위 전략을 <표 1>로 제시했다²⁾.

<표 1> 간접성 등급화에 근거한 지시 화행 전략

지시 단계	전략
직접적, 명시적 지시 단계(The most direct, explicit level)	<1> 서법에 의한 도출 (Mood derivable)
	<2> 명백한 수행문 (Explicit performatives)
	<3> 약화된 수행문 (Hedged performatives)
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 (The 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4> 발화 의미로부터 도출 (Locution derivable)
	<5> 화자 의도 언급 (Scoping stating)
	<6> 제안성 어구 (Suggestory formula)
	<7> 예비적 조건 언급 (Reference to Preparatory conditions)

2) CCSARP에서 사용한 분석 틀은 8개 언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한국어의 요청 화행 전략 연구나 화행의 대조 분석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되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관습적, 우회적 지시단계(The non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8> 확실한 단서 (Strong Hints)
	<9> 불확실한 단서 (Mild Hints)

본고에서의 ‘간접 표현’은 <표 1>의 지시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비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에 해당한다. 즉 단서를 제공하여 우회적으로 금지하는 표현이다³⁾. 예를 들면 영화관 뒷사람이 내 좌석을 차고 있을 때, ‘영화에 집중할 수 없네요’ 등 단서를 제공하는 발화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확실한 단서와 불확실한 단서의 구별은 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본고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본고의 간접 금지의 범위는 <표 2>와 같으며, 세부 전략은 3장에서 제시한다.

<표 2> 한국어 간접 금지 화행 범위

지시 단계	전략
비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The non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단서 (Hints) 제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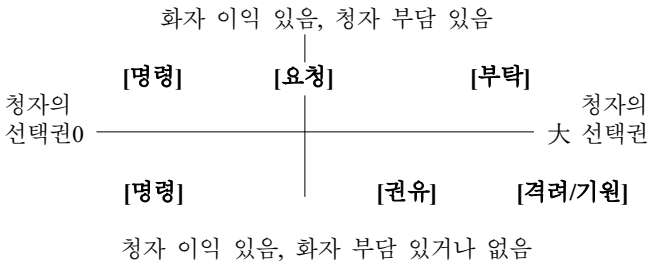
2.2. 금지 표현의 세부 기능

한국어 금지 표현의 세부 기능 분류 기준에 대한 선행 논의는 이은희(2012)가 유일하다. 이은희(2012)는 세부 기능 분석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Leech(1983)의 화용론적 척도를 일부분 지시적 표현에 적용한 柏崎雅世(1993)을 검토해, 이를 한국어 금지 표현에 적용하였다. 柏崎雅世(1993)의 기준은 고정된 표현 형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도록 변형한 것이다. ‘금지 표현’이라는 개별 표현 형태를 고정하고, 그 기능을 분석하

3) 따라서 서법에 의한 도출(-지 마세요), 명백한 수행문(금지합니다), 발화 의미로부터의 도출 (들어가지 못 해요), 화자의 의도 언급(-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의 전략에 의한 표현은 간접 표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에는 Leech(1983)의 기준보다 더 유용했다고 본다. 그런데 본고는 직접 표현을 대상으로 한 이은희(2012)와 달리 간접 표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은희(2012)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간접 금지는 관용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 [(관용)]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柏崎雅世(1993:32 ~37)에 따라 이 기능을 [격려/기원]로 제시한다. 본고의 간접 금지 표현의 세부 기능 분석을 위한 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금지 표현의 세부 기능 분석 기준



3. 모어 화자의 간접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여기서는 담화완성형 테스트(DCT)를 통해, 학습자가 금지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3.1. 조사 방법 및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의 조사 방법과 조사 도구는 이은희(2012)에 따른다. 본고

는 한국어 화자들의 간접 금지 표현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전문가 예비 조사(상황적절성 조사, DCT)] ⇨ [조사 도구 수정 및 보완] ⇨ [수정된 문항에 대한 상황적절성 재조사] ⇨ [조사 참여 대상자 모집] ⇨ [본조사 (DCT) 실시] ⇨ [결과 분석]

먼저 전문가 대상 예비 조사에서는 설문 문항에 대한 상황적절성을 조사하고, 본 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다⁴⁾. 이 조사는 설문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학습자가 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연스럽고 적절한 상황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금지 표현의 세부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맥락을 제시했으며, 5간 척도로 상황의 개연성을 조사하여 적절성 평균값이 3.5 이상인 10개 문항을 채택하였다. 조사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상황적절성조사 문항의 예시

[상황]

친한 선배가 나에게 자꾸 거슬리는 장난을 합니다. 내 불룩한 배를 찌르면서 혼자 깔깔대며 재미있어 합니다. 장난이지만 나는 불쾌합니다. 장난을 그만 두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 (1) 위 상황이 학습자의 한국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 만일 ①②번을 골랐다면 그 이유를 써 주십시오.

예비 조사에서는 CCSARP에서 사용한 담화완성형 테스트(DCT)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분석 결과 DCT 조사의 절차상의 문제는 발

4) 전문가 집단은 한국어 전공 교수와 강사, 외국어교육 전공 교수, 한국어 교사 10인으로 구성되었다.

견되지 않았으나, 부적절한 상황이나 청자의 설정이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발견할 수 있었고, 변인으로 ‘힘의 크기’와 ‘친소 관계’를 더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예비 조사의 상황적절성 평균값 3.5 이상인 10개 상황만 추출하고, 응답자의 개별 의견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제시 상황을 수정하였다. 또 Blum-Kullka, House & Kasper(1989)의 요청 화행 전략의 변인⁵⁾을 참조하여 화청자 간의 사회적 힘의 크기 및 친소 관계를 고려하여 학습자 상황에 적합하도록 최종 16개 문항으로 본 조사 도구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문항에 대해서만 상황적절성을 재조사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화자는 총 210명이다. 이 중 무응답, 장난 등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응답 오류는 제외하는데, 문항별 분석에서 응답 오류를 제시한다.

3.2. 기능별 간접 금지 표현 분석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한 다양한 간접 표현의 형태적 유형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교육에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표현의 용례를 제시한다.

1) [명령]기능의 간접 금지 표현

- [상황 1] 컴퓨터실에서 조교가 학생에게 게임 금지시키기
- [상황 1]은 공적인 상황이며 명백히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을 금하는 것이므로 확실히 [명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CCSARP에서는 요청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인 힘(power)인 권위, 사회적 거리(distance)인 유대감, 요청의 부담’을 들고, 각 변인은 언어마다 그 비중이 다를 수도 있으며 그 밖의 또 다른 변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Blum-Kullka, House & Kasper, 1989)

<표 4> [상황 1]에 나타난 금지 표현의 사용 양상

전략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49	
간접	지시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강조	중단하지 않으면 퇴실조치 합니다. 이용 정지시키겠습니다.퇴장이예요.	8	52
	대안 제시	피시방에 가세요, 게임은 집에서	6	
	원칙 내세우기	규칙을 지킵시다, 규정 준수는 필수예요, 피시방 아닙니다.	14	
	기타	게임 1시간이 넘었어. 학번 대세요.	24	
계			201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9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비율은 전체의 25.87%였고, 표현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형태의 과반 수 이상은 전략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공격적이고 소원한 관계에서 [명령]을 수행할 때 ‘원칙 내세우기’ 전략이 가장 많고 표현 형태가 다양하지 않다.

2) [요청]기능의 간접 금지 표현

- [상황 2] 동아리 후배에게 동아리방 벽에 사진 부착 금지
힘의 크기가 작은 청자에게 금지를 지시하는 상황이다.

<표 5> [상황 2]에 나타난 금지 표현의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23	
간접	대안 제시	다른 데/몇 개만 붙이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21	78
		앨범에 넣으면 어떨까?, 다른 데 정리하는 게 어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26	
	허락 받기 요구	허락 말고/상의하고 붙여야지, 허락받고 해. 얘기 하고 붙여야지.	9	
	화자 기분 전달	지저분하다, 어지러운 것 같아, 어수선 해, 정신없다	12	
	청자 의증 묻기	꼭 붙여야 되니?, 언제 뗄 거야? 정신없지 않니? 좀 그렇지 않나?	5	

화자 의견 전달 ⁶⁾	보기 안 좋은데. 좀 아닌 거 같아	5
계		201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9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 비율은 전체 금지 표현의 약 38.80%였다. 대부분 전략의 유형화가 가능하며, 최고 빈도로 월등히 많이 사용된 전략은 ‘대안 제시’로 간접 표현 중 반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주로 의문형, 청유형을 사용하여, 대안을 제안한다.

- [상황 3]후배에게 나의 시험 성적에 대한 질문 금지하기
 이 상황은 청자가 후배라는 점과 질문하는 화자의 행위가 예의에 벗어난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금지하는 행위는 화자에게 이익이 되며 무례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에 요구에 대한 청자의 선택권은 많지 않다.

<표 6> [상황 3]에 나타난 금지 표현의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37
간접	과장해 대답하기	완전 망쳤어, 망했어, 성적 잘 안 나왔어. 나 1등 한 거 같아야. 몰라	18
	화자 기분 전달	짜증나려해, 밝히기 좀 그렇다. 성적 얘기 좀 불편해, 성적 묻는 거 싫어 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할 기분 아냐.	8
	화제 전환/ 회피	장학금이 뭐니?, 딴 이야기 하자, 다른 이야기 하자, 다음에 얘기해 줄게	5
			63

6) 여기서 '의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본고에서 직접 표현으로 분류한 '화자 의도 언급(Scoping stating)'에서의 '의도'와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와 상관없이 개념의 차이를 보이기 위함이다. 즉 '화자 의도' 언급은 한국어에서 '-았/었으면 좋겠어, -았/었으면 해'와 같이 형태적인 유형화가 가능한 표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화자 의견'은 이러한 형태적 유형화가 불가능한 다양한 간접 표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선 긋기	내 일이잖아, 너나 신경 써. 너나 잘 해	5
장난의 험박	몰어 보면 혼난다, 디질래? 그 입 좀 싸 물어 볼까? 너무 많이 알면 다쳐.	6
원칙강조	비밀이야	1
청자 끌어들이기	너도 장학금이랑은 거리가 멀어. 넌 받을 거 같지? 너부터 말해	3
기타	대출이나 받아야겠다. 너부터 말해.	17
계		200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10

간접 금지 표현은 전체 응답 중 31.5% 사용되었다. 간접 금지를 위한 전략은 7가지로 다양했는데, 과장해서 대답하여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게 하는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 [상황 4] 룸메이트에게 방 벽에 사진 부착 금지하기
이 상황은 [상황2]와 비슷하지만, 청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룸메이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7> [상황 4]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04	
간접	대안 제시	다른 데 붙여 놓는 건 어때?어떨까?, 따로 보관해 줄래?,간직하자,	53	93
	화자 기분 전달	어지럽다, 어수선하다, 정신없어,	14	
	청자 의중 묻기	꼭 붙여야 되겠니? 왜 붙여?	5	
	화자 의견 전달	암 것도 붙이고 싶지 않아	7	
	금지이유 전환	난 그 연예인 별로야, 나 애 싫어	5	
	화자 존재 내세우기	나한테도 물어 봐야지. 내 생각도 좀 해줘,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	5	
	기타	그게 뭐냐? 너무 티내는 거 아냐?	4	
계			201	
		무응답 또는 답 오류	9	

간접 금지 표현은 전체 금지 표현 중 약 46.26 %를 차지한다. 표현은

대부분 전략의 유형화가 가능한데 이 중 ‘대안 제시’는 전략 중 65%가 넘는 최고 사용 빈도이다. 한국어 화자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꺼리기 때문에 이러한 청자 변인이 발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상황 5] 친구에게 비밀 누설 금지하기
친한 친구에게 정보를 주고 타인에게 발설을 금지하는 상황이다. 화자의 간절함이 포함되며, 청자에게 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다. 다만, 화청자의 관계가 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애정과 신뢰가 깔려 있다는 점이 특별한 점이 된다.

<표 8> [상황 5] 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60	
간접	청자 단독의 의무감 부여	너만 알고 있어, 우리만 알고 있자, 혼자만 알고 있어. 모르는 척 해	35	41
	정보 의미 확정성 강조	아직 확정 아냐, 소문인데 확실하진 않아,	2	
	기타	이거 퍼지면 니가 퍼뜨린 거다. 말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	4	
계			201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9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비율은 전체 금지 표현의 약 20.39%이고, 전략도 2가지 정도로 유형화된다. 친한 청자에게 비밀 누설을 금지할 경우, 모어 화자들은 우회적 표현을 선호하지 않으며 금지의 의무감을 부여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 [상황 6] 선배에게 심한 장난 금지하도록 요청하기
이 상황은 화자인 나의 배를 찌르면서 심한 장난을 하는 친한 선배

에게 장난 금지를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표 9>[상황 6] 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56	
간 접	청자의 기분, 느낌 전달	장난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이 장난 싫어요, 기분 상해요/나빠요, 재미없어요, 불쾌해요, 불 편해요.기분 별로 안좋습니다	23	43
	화자 의견 전달	장난 너무 심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장난 이 좀 그래요	3	
	청자 끌어들이기	선배 배 찢러도 되겠습니까?, 당해 보실래요?, 선 배 배가 내 두 배예요.	6	
	협박	나 정말 화내요. 배로 한번 맞아 볼래?	3	
	기타	진짜 이럴 거예요? 놀리시는 거죠?, 제 배는 저만의 것이예요. 머리 만져 주세요	8	
계			199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그냥 피함)	11	

여기서 간접 표현은 전체 금지 표현 중 약 21.6% 사용되었다. 신체 접촉 상황과 같이 강도 높은 금지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 한국어 화자들은 명령형을 많이 사용하므로 간접 금지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간접 금지 표현은 ‘화자의 기분, 느낌 전달하기’ 전략에 치우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 [상황 7] 뒤에서 미는 사람에게 밀지 말 것을 요청하기
놀이공원이나 공연장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는데, 또래로 보이는
뒷사람이 자꾸 나를 밀고 있는 상황이다.

<표 10> [상황 7]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40	
간 접	공중도덕(질서 준수)내세우기	순서를 지켜야죠, 줄 똑바로 섭시다, 줄 서서 들어가셔야죠, 질서를 지킵시다. 차레 지킵시다.	22	59

사실 확인시키	여기 줄이에요, 제가 먼저 왔거든요,	4
금지 이유 언급	위험해요, 다칠 거 같아요, 사고 나겠어요, 이러다 모두 다칩니다.	8
주의 요청	좀 조심해 주세요, 좀 조심하시죠.	5
기타	줄 안 보이세요? 발 밟으셨는데요, 그렇게 급하면 일찍 오지 그랬어요?	20
계		199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11

이때는 대체로 강한 직접 표현이 선호된다. 그러나 공중도덕, 질서 지키기 등 원칙 내세우기나 사고 위험성 강조 등 간접 표현도 전체의 약 29.64% 나타났다. 간접 표현 중에는 ‘발 밟으셨는데요, 그렇게 급하면 일찍 오지 그랬어요?’ 등 특정 전략으로 유형화가 어렵고 개성이 반영된 발화가 두드러진다.

- [상황 8] 영화관 뒷자리 여학생에게 의자를 발로 차지 말 것을 요청하기

모르는 사람에게 금지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의 사용이 예상된다. 그런데 예비 조사에서 청자가 중년 남자일 경우 회피 전략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자유로운 발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청자의 힘의 크기를 낮추어 여고생으로 바꿔 문항을 재설정하였다.

<표 11> [상황 8]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65
간접	말끝 흐리기	저기요..., 발(의자) 줄...,	15
	주의/배려 요청	조심해 주세요, 의자 좀 신경 써 주세요, 조금만 배려해 주실 안 될까요?	15
	화자의 기분 상태 전달	집중할 수가 없네요, 좀 신경 쓰여서요, 불편해서요, 방해가 됩니다,	5
	예절 강조	예절 좀 지켜주세요.	1
			40

기타	다리가 예쁜데, 나한테 관심 있어요?	4
계		205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한 번 뒤돌아 봄, 한그냥 참는다)		5

간접 금지 표현은 전체 금지 표현 중 약 19.51%에 해당했다. ‘발 좀...’과 같이 말을 끝맺지 않아 불손한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전략과 주의를 요청하는 전략이 주로 사용된다. 본 조사에서 청자를 여고생으로 바꾼 결과, 예비 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직접 명령형이 많이 나타났다. 결국 한국어 화자들은 소원한 관계의 청자에게 금지를 요청할 때 힘의 크기에 따라 표현을 대조적으로 사용하며, 청자 힘이 약할 때 간접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 [상황 9] 국수 주문 시 식당 주인에게 고춧가루를 넣지 말도록 요청하기

한국의 대중 식당에서는 무조건 손님을 우대하기보다 ‘나이’와 같은 전통적 가치 기준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손님과 식당 주인 관계는 힘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12> [상황 9] 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77
간접	금지 강도 약화	조금만 넣어주세요., 덜 맵게요	20
	화자 입장 전달	매워요, 매운 거 못 먹어요,	2
	기타	순한 국수 하나요, 따로 주세요	2
계			201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9

금지 표현이 잘 사용되지 않는 소원한 관계에서의 상황이며, 화청자 간에 힘의 크기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별하다. 간접 금지 표현 사

용비율은 전체 금지 표현 중 11.44%이고,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3) [권유]기능의 간접 금지 표현

- [상황 10] 후배에게 복사 가게에 들르지 말라고 하기
수업 중 사용할 복사물을 찾아오기로 한 후배를 위해, 선배인 화자가 대신 복사물을 찾아가려는 상황이다. 화자는 후배에게 전화로 가게에 들르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

<표 13> [상황 10] 에 나타난 간접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46
간접	화자의 행위 의지 전달	내가 찾아갈게/찾아올게, 내가 들릴게, 복사물 내가 대신 찾았어, 내가 갖고 간다	54
계			200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그냥 피함)	10

전체 응답의 27%에 해당하는 54명이 동일한 전략의 간접 표현을 사용했다. 화자는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여 가게에 들르지 말라는 간접 발화를 하였다. 청자 배려의 의도이고 이익이 청자에게 돌아가지만 화자가 마음대로 원칙을 깨는 상황이기도 하므로 강한 명령형이 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상황 11] 골초 친구에게 금연하도록 말하기
이 상황은 골초 친구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권유하는 상황이다.

7) 학교 앞 식당에서 국수에 고춧가루를 넣지 말라는 금지 요청 상황에서는 ‘빼 주다’의 명령형 표현 ‘빼 주세요’가 월등히 많이 나타났는데, 201명 중 107명의 응답자가 이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53.2% 이상의 높은 빈도이다.

<표 14> [상황 11]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125	
간접	협박하기(행위 이행의 피해 알리기)	암 걸린다, 큰 일 난다, 너한테 냄새 나, 일찍 죽어, 후회한다, 빨리 죽고 싶어? 그러다 승천한다.	37	74
	건강 강조	건강 좀 챙겨. 몸 좀 생각해, 건강 조심	18	
	타인에 대한 배려 구하기	옆 사람 좀 생각해 줘.담배는 주변사람을 더 위험하게 해,내 폐가 더 썩겠다	3	
	기타	문 닫을 시간이다, 담배 피다 죽은 사람 사진 보여줘?	16	
계			199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그냥 포함)	210	

간접 금지 표현은 전체 금지 표현 중 37.18% 사용되었다. 친한 청자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며 협박하는 전략이 가장 많았다. [권유]는 직접 표현도 용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연의 경우 간접 표현이 30%이상이다. 이는 ‘금연’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 조사의 ‘금주’에서도 비슷했는데, 중독성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쉽게 지시를 이행하기 힘든 청자를 배려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상황 12] 눈 많이 온 날, 운전하지 말도록 권유하기
이 상황은 청자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청자의 힘의 크기가 화자보다 명백히 큰 경우이다.

<표 15> [상황 12]에 나타난 간접적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101	
간접	위험 강조	위험할 것 같습니다, 미끄러울 것 같아요	32	99
	객관적인 정보 제공	난리 났어요, 교통사고 많이 난대요, 많이 막힌다고 하던데요.	25	
	대안 제시	자고 가세요, 걸어가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전철 타고 가세요. 차는 내일...	38	

기타	저현 전철 타고 가려구요	4
계		200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10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빈도는 전체 금지 표현 중 49.5%로 매우 높다. 상급자에게 금지를 표현하는 것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금지 행위의 결과가 [+청자이익]이고 청자 선택권이 커서 청자 체면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상급자에게는 간접 표현이 월등히 선호된다.

4) [부탁]기능의 간접적 금지 표현

- [상황13]직장 상사에게 회식 때 노래시키지 말도록 부탁
청자에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며 화자 입장에서 간절함이 더해지므로 단순한 요청이기보다는 부탁의 상황이다.

<표 16> [상황 13]에 나타난 간접적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148	
간접	화자 입장 전달	정말 노래를 못해요,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해서요,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20	50
	대안 제시	노래 대신 큰 호응으로 분위기 띄우도록 할게요, 다른 걸 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춤을 추겠습니다, 술 먹죠	24	
	기타	노래학원 등록했으니 기다려 주세요. 분위기가 깨져도 괜찮겠습니까?	6	
계			198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그냥 노래함, 자리 피함등)	12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비율은 전체 금지 표현 중 25.25%였다. 다른 것을 하겠다는 대안 제시가 가장 많고, 화자의 입장을 전달해 노래를 시키지 않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많았다.

5) [격려/기원] 기능의 간접적 금지 표현

- [상황14]과제물 제출을 부탁하며 걱정하는 선배에게 말하기
이 경우 화자는 보통 청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발화를 하는데, 이는 곧 선배에게 걱정을 금지하는 발화가 된다.

<표 17> [상황14]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140	
간접	다짐하여 확신 주기	지금 가방에 넣어 놓을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안 잊어버릴게요, 꼭 제출할게요, 잘 낼게요, 잘 챙겨 갈게요, 조심할게	49	62
	대안 제시	전화 한 통 해 줘요, 문자 한 번 주세요. 카톡 한번만 더 해 주세요.	9	
	기타	괜찮아요. 제출 못 하면 뷔페 쓸게요.	4	
계			202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7	

이 상황에서 간접 금지 표현은 전체 금지 표현 중 약 30.69 % 사용되었다. 이 상황에서는 자신을 믿으라거나 의지를 다짐하여 청자에게 확신을 주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 [상황15] 나의 여행을 걱정하는 애인에게 걱정 금지하기
오지로 여행가는 ‘나’ 를 걱정하는 애인을 안심시키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청자가 힘의 크기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자 간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는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금지 표현의 사용 양상이 매우 다른데 애인도 가족과 같이 친밀한 특수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자의 걱정이 화자(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곧 청자의 일로 동일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 18> [상황15]에 나타난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걱정하지 마	132	
간접	확신주기	나 잘 할 수 있어, 조심해서 다녀올게,	30	68
	대안 제시	자주 연락할게. 문자 주세요,같이 갈래?	20	
	부연 설명	훈련 떠나는 거야. 재미있을 거야.	2	
	감사 표시	고마워, 감동이야	6	
	기타	날 많이 사랑하는군. 내가 애냐?	10	
계			200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10	

간접 금지 표현은 전체 금지 표현 중 약 34% 비율로 사용되었다. 이 상황에서는 [상황14]보다 간접 표현의 사용비율이 조금 더 높고, 더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며, 전략으로 유형화되지 못한 기타 간접 표현들도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 [상황16] 내 건강을 걱정하는 후배 안심시키기
아르바이트로 피곤해 보이는 나를 걱정하는 후배에게 걱정을 금지시키는 상황이다.

<표 19> [상황16]에 나타난 간접 금지 표현 사용 양상

전략		표현 용례	계	
비간접		(생략)	39	
간접	화자의 입장 전달	할만 해, 별로 안 피곤해, 힘들지 않아,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여기 진짜 좋아!	86	155
	고마움표현	걱정해줘서 고마워, 고맙다	36	
	선긋기	내가 알아서 해, 너나 잘 해, 알아서	7	
	대안 제시	좀 하다 그만 뒤야지. 곧 끝날 거야.	3	
	기타	죽기야 하겠냐? 또 언제 해 보겠니?	23	
계			194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16	

간접 금지 표현은 전체 금지 표현 중 약 79.89%에 해당하며, 직접 표

현보다 간접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청자의 걱정을 금지하므로 ‘걱정하지 마’가 사용될 수 있으나 한국어 화자들은 간접 표현을 월등히 선호하였다. 여기서는 ‘청자 입장 전달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표현 형태는 매우 다양했다. 이렇게 청자가 걱정하는 일이 화자인 나의 일일 때, 한국어 화자들은 직접 표현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은 청자의 행위(걱정)를 금지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강하지 않고, 금지 강도도 세지 않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화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걱정을 금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3.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 종합

여기서는 간접 금지 표현의 교수 내용 마련을 위해, 앞서 상황 별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표현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금지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은 상황에 따라 11%~80%의 다양한 비율로 간접 금지 표현을 사용하였다. 동일 전략으로 사용된 간접 표현들은 전략에 따라 제시하였는데, 6~7가지의 다양한 전략이 사용된 상황과 1~2가지의 전략만 사용되는 상황이 구별되었다. 또한 여러 상황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전략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된 전략도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상황적 특징 및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황 별로 나타난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비율 및 전략을 보이면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빈도 및 전략

기능	친소	힘의 크기	상황	빈도 및 비율	전략
명령	소	< 화자	[1]조교가 학생에게 게임 금지	52회/ 25.87%	지시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강조, 대안 제시, 원칙 내세우기
요청	친	< 화자	[2]후배에게 동아리방 벽에 사진 부착 금지 요청	78회/ 38.8%	대안 제시, 허락받기 요구, 화자 느낌·기분 전달, 청자 의중 묻기, 화자 의견 전달
			[3]후배에게 내 시험 성적 묻지 말라고 요청	63회/ 31.55%	과장해 대답하기, 화자 기분 전달, 화제 전환/회피, 선 굵기, 장난식의 협박, 원칙 강조, 청자 끌어들이기
		청자=화자	[4]룸메이트에게 벽에 사진 부착 금지	93회/ 46.2%	대안 제시, 화자 기분 전달, 청자 의중 묻기, 화자 의견 전달, 금지 이유 전환, 화자 존재 내세우기
			[5]친구에게 비밀 누설 금지 요청	41회/ 20.39%	청자 단독 의무감 부여, 정보의 미확정성 강조
		< 청자	[6]선배에게 심한 장난을 그만 둘 것 요청	43회/ 21.6%	화자 기분 전달, 화자 의견 전달, 청자 끌어들이기, 협박
		소	청자=화자	[7]뒷사람에게 밀지 말 것을 요청	59회/ 29.64%
	< 화자		[8]극장 뒷자리 여고생에게 의자 차지 말 것 요청	40회/ 19.51%	말끝 흐리기, 주의/배려 요청, 화자 기분 전달, 예절 강조
		[9]식당에서 국수에 고춧가루금지 요청	23회/ 11.44%	금지 강도 약화, 화자의 입장 전달	
권유	친	< 화자	[10]복사 가게 들르지 말 것	54회/ 27%	화자의 행위 의지 전달
		청자=화자	[11]친구에게 금연 권유	74회/ 37.18%	협박, 건강 강조,, 타인에 대한 배려 요구

		< 청자	[12]눈 오는 날 운전 금지	99회/ 49.5%	위험 강조, 객관적인 정보 제공,대안 제시
부탁	친	< 청자	[13] 노래 시킴 금지	50회/ 25.25%	화자 입장 전달 ,대안 제시
격려/ 기원	친	< 청자	[14]과제물 대출 걱정 금지	62회/ 30.69%	확신 주기, 대안 제시, 부연 설명,감사 표시
		청자= 화자	[15]애인에게 내 걱정 금지	68회/34%	다짐하여 확신 주기, 대안 제시
		< 화자	[16]후배에게 내 건강을 걱정 금지	155회/ 79.89%	다짐하여 확신 주기, 대안 제시, 부연 설명, 감사 표시

간접 금지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상황은 [격려/기원]기능이 사용된 [16]인데, [격려/기원]기능이 나타나는 다른 상황에서는 간접 표현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기능에서 간접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 상황은 특별히 청자의 걱정이 온전히 화자인 나 자신을 위한 일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간접 금지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상황은 눈 오는 날 상급자에게 운전 금지를 권유하는 [12]와 룸메이트에게 사진 부착 금지를 요청하는 [4]이다. 이 두 상황은 공통적으로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와의 관계를 매우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다. 두 상황은 기능도 다르고 화청자간의 힘의 크기도 다르므로, 이를 통해 간접 금지 표현은 표현의 세부 기능이나 힘의 크기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간접 표현이 많이 사용된 [2]를 [4]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는 화청자간의 힘의 크기가 간접 표현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 [2]는 청자의 힘이 화자보다 적은 ‘후배’라는 점이 다른데, 이때에는 간접 금지 표현의 사용 비율이 청자가 동기일 때보다 조금 낮다. 즉 힘의 크기가 적은 청자에게는 간접 금지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골초 친구에게 금연을 권유하는 [11]에서는 금지 표현의 37.18%가 간접 표현이었으며, 애인에게 화자(나)의 오지 여

행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15]에서도 34%가 간접 표현이었다. 이 두 상황은 모두 [+청자이익]인 상황이므로,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지 표현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간접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상황적 특수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연, 금주와 같이 중독성 있는 행위의 금지는 청자의 의지만으로 행위를 금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배려한 발화라고 생각된다.

이제 간접 표현이 저비율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낮은 사용비율을 나타낸 상황은 주문 시 고춧가루를 넣지 말도록 요청하는 [9]이다. 이 경우는 금지 표현 자체가 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빼 주세요’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간접 금지 표현의 낮은 사용을 보인 상황은 극장 뒷자리 여고생에게 의자를 차지 말라고 요청하는 상황 [8]이다. [9], [8]의 두 상황 모두 청자가 화자보다 힘의 크기가 작고 소원한 관계에서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비밀 누설 금지를 요청하는 상황[5] 및 선배에게 심한 장난을 그만 둘 것을 요청하는 상황[6]이 각각 20.39%와 21.6%로 세 번째로 낮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이 두 상황은 모두 친밀한 관계에서 강도 높은 금지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 높은 금지를 하는 상황은 컴퓨터실 조교가 학생에게 게임 금지를 [명령]하는 [1]에도 해당하는데 이 역시 25.87%로 비교적 낮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또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 상황은 회식 때 노래를 시키지 말 것을 부탁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화자의 간절함이 포함된 금지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간접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간접 금지 표현들은 전략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간접 금지를 위해 사용된 전략 중 ‘대안 제시하기’ 전략은 [명령], [요청], [권유], [부탁], [격려/기원]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광범위하

게 사용된 전략이다. 또한 ‘화자의 기분이나 느낌 혹은 화자의 입장 전달하기’ 전략은 [요청]과 [부탁]기능을 수행할 때 사용되었으며, ‘다짐하여 확신 주기’ 전략은 [격려/기원]기능을 수행할 때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질서 준수나 공중도덕 혹은 규칙 등을 내세우는 전략도 사용되었는데 이 전략은 공적인 소원한 관계에서의 [명령]기능이나 소원한 관계에서의 [요청]기능을 수행할 때에 사용되었다.

제시된 상황 중 간접 금지를 위해 가장 다양한 전략(7가지)이 나타난 상황은 [3]이다. 그리고 상황[2] 및 상황[4]는 6가지 전략이 사용되었다. 이 세 상황([2], [3], [4])은 모두 친한 관계의 청자에게 [요청]하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통은 3~4가지 정도의 전략이 사용되며, 복사 가계에 들리지 말 것을 [권유]하는 [10]은 단 하나의 전략만 나타났다. 대체로 [권유]기능을 수행하는 금지 상황에서 가장 적은 수의 간접 표현 전략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권유]는 기본적으로 [+청자이익]이며 청자에게 선택권이 많으므로 굳이 돌려서 간접적으로 금지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4. 간접 금지 표현의 교수·학습을 위한 제언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간접 금지 표현의 교육 내용 측면에서 제언을 더하고자 한다. 그런데 교육 내용은 교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 현장에서 다루게 되는 간접 금지 표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언 이전에 먼저 교재에서는 어떤 간접 금지 표현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려고 한다.

4.1.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간접 금지 표현

교재 분석을 통해, 현재 수업에서 최소한 다루게 되는 간접 금지 표현

의 교수 학습 양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다. 즉 교재에서 간접 금지 표현의 숙달도별 제시 양상이나 제시되는 상황의 실제성, 화용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 교재는 최근(2007년 이후) 발간된 대학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재 3종이다. 3개 대학에서 사용하는 초급~고급까지의 교재 전권으로, 권수로는 총 27권이다.

교재를 살펴본 결과, 총 27권에서 간접 금지는 총 7회 제시된다. 세부 기능이 모두 제시되지 않아 세부 기능별 분석이나 사용되는 전략의 빈도 분석이 어려웠고, 단 1회 제시된 교재도 있어 숙달도별 제시 양상이나 제시 상황, 화용 정보 등 더 정밀한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 실태 파악을 통해, 앞으로 간접 표현을 교재에 담아낼 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은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교재에 제시된 간접 금지 표현은 <표 21>과 같다.

<표 21> 교재에 제시된 간접 금지 표현

	A교재	B교재	C교재
제시 단계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제시 횟수	1회	2회	4회
세부 기능	[권유]	[권유] [권유]	[명령] [권유] [요청]
용례	①내가 너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거야.	①너무 힘든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②아무리 바쁘다손 치더라도 미루면 안 되지요.	①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 ②오늘 같은 날씨에 입기에는 추울 것 같아요. ③들고 먹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④밥을 먹으면 예의에 벗어나요.

3종 교재 모두 중급 이상에서 간접 금지 표현이 제시되고, B교재만 1회 고급 교재에 제시되었다. 고급 학습자에게 더 많이 요구된다고 여겨지는 간접 금지 표현이 고급 교재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금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간접 표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급 교재들이 설명문, 기사문, 칼럼 등을 주로 제시하며, 대화문도 대담, 인터뷰와 같은 공식적인 대화문을 제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간접 표현은 사적인 대화문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급 교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교재에서 간접 금지 표현을 다루려면 적절한 상황과 자세한 맥락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형태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교재 내에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 내용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고빈도로 나타나는 상황과 전략, 그 전략을 수행하는 표현 형태들을 파악하여 이를 교재에 포함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3장에서 간접 금지의 전략들을 유형화하여 전략의 사용빈도를 확인하고, 전략별로 사용되는 표현 형태들을 분류하였다.

또한 실제로 간접 표현은 형태적 유형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재에서 체계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간접 표현의 형태적 유형화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간접 표현 교육 전반에 걸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전략의 유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4.2. 제언 부분에 기술하기로 한다.

4.2. 간접 금지 표현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제언

이제 학습자가 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간접 금지 표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를 살펴본 결과를 참고하여, 간접 금지 표현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간접 금지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이를 교수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연구의 분석 결과, 간접 금지 표현이 고빈도로 나타나는 상황은 [16]>[12]>[4] 순인데, 세부 기능으로는 [격려/기원]>[권유]>[요청] 순이 된다.

둘째, 간접 금지 표현은 상황에 따른 전략의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교수 학습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황별로 사용된 전략의 사용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상황별로 많이 사용된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략을 직접 학습자에게 가르치기는 어려우므로, 전략 그 자체만으로는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⁸⁾. 유형화된 전략에 따라 표현 형태들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자료나 교재 등을 구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 상황에서 최고 비율로 사용된 전략에 중점을 두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표현 형태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황[7]과 같이 뒤에서 미는 내 또래에게 밀지 말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5가지의 전략 중 최고 빈도로 사용된 ‘규칙 내세우기’ 전략을 수행하는 표현, 즉 ‘질서 좀 지킵시다’ ‘차례 지켜야죠’ 등의 발화를 예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는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려해 적절한 표현 형태를 추출할 수 있다.

셋째, 금지 표현의 세부 기능 수행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간접 금지 표현이 얼마나 많은 세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즉 하나의 표현이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5가지 기능을 광범위하게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하기’ 전략과 [요청],[부탁]기능을 수행하는 ‘화자 기분 전달하기’ 전략은 교육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을 수행하는 표현 형태들을 교육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8) 물론 고급 학습자들이라면 전략의 직접적인 교육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넷째, 간접 금지 표현들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형태를 모두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간접 표현들은 이해 교육용으로 분류하여 듣기나 읽기 지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5. 맺음말

금지 표현은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고 인간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간접 표현은 형태적 유형화가 어려워 교육적 차원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접 표현은 학습자 스스로 관찰하고 익혀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만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간접 금지 표현의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해 우선 모어 화자들의 간접 표현 사용 양상을 정밀히 분석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는 상황별로 간접 금지 표현이 전체 금지 표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략의 사용 비율도 산출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간접 금지 표현의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이어 한국어 교재에서 간접 금지 표현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 금지 표현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제언을 덧붙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교육자료 개발자나 연구자들이 간접 금지 표현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데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권성미·이혜용(2008). 한국어 초중급 교재에 제시된 간접화행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 1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31쪽.
- 김영란(1999). 한국어 금지 표현의 교수 방법, <한국어교육> 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1쪽~193쪽.
- 김정숙(2008). 한국어 교수법의 일반 원리,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박석준(2010). 담화 문법과 한국어 문법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0차 국제 학술대회 국제학술발표 논문집. 471쪽~484쪽.
- 박형우(2007).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양상에 대한연구. <청람어문 교육> 35, 청람어문교육학회. 129쪽~152쪽.
- 신현숙(2012). “한국어교육의 이해”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I. 신현숙 외. 서울: 푸른사상.
- 양명희(2011). 한국어 교육에서 화행 교육의 목표와 방향 : 칭찬 반응 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9호, 한말연구학회. 193쪽~216쪽.
- 이동은(2008).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화용능력 고찰-영어권 교포학습자와 비교 포학습자의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쪽~320쪽.
- 이은희(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식.”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303쪽~334쪽.
- 이은희(2012). 한국어 금지 표현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희(2012). 한국어 행위 지시 표현 교육 연구, <문법교육>16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41쪽~272쪽.
- 이은희(2013). 금지 부사의 의미적 특성과 한국어교육, <한국어의미학> 41호, 한국어의미학회. 111쪽~140쪽.
- 이용주 (1975). 『의미론 개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준호(2008).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의문문 교육 연구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문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9쪽~304쪽.
- 이필영(2003). 간접 화행 해석의 조건과 방향, <텍스트언어학> 15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13쪽~339쪽.
- 이혜영(2010). 한국어 요청 화행의 적절성에 대한 태국인의 인식과 숙달도. <이중언어학> 42호, 이중언어학회. 219쪽~240쪽.
- 장경희(2004). 국어 지시 표현의 유형과 성능, <한국어의미학> 15호, 한국어의미학회. 51쪽~70쪽.
- 정민주(2003). 한국어 요청 화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柏崎雅世(1993). 『日本語における行爲指示型表現の機能』, 日本語教育基礎 研究シリーズ1. くろしお出版.
- 加藤重廣(2004). 『日本語語用論のしくみ』, 東京: 研究社.
- 森田良行(1989). “話す行爲を表わすことばとその意味体系”. 『日本語学』 11.
- 山梨 正明(1986). 『發話行爲』, 大修館.
- 山梨正明(1989). “語用論”,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言語學要説(上)』, 大修館.
- 佐佐 木倫子(1991). 言外の 意味と日本語教育, <日本語学> 8.
- 坂本百大 土屋俊 譯(1986). 『言語行爲 言語哲學への試論』, 勤草書房.
-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 “Cross-Cultural and Situation Variant in Requesting Behavior”.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Ablex.
- Leech, G.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이은희(Lee Eun Hee)

한국고원대학교 제2대학 국어교육과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전화번호: 010-3555-5417

전자우편: yeh900@hanmail.net

접수일자: 2014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4년 5월 21일

게재확정: 2014년 6월 4일